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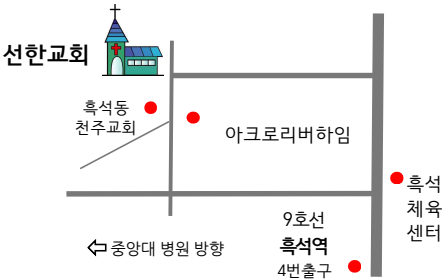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1:00 바울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1: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비전워십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월-금요일 새벽 5:30		오전 11:00 드보라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셀별로 정한 시간		오전 11:00 에스더회 오후 2:00
셀 가족 모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협동목사 홍진표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교육전도사 윤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효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장 로	조윤익		
	편도선 (집사장)	관리장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36,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벧전 4:11)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30 3부 오후 1:00	2부 오전 1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3부(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9장 (통일찬송가 29장)			
교 독 문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찬 양 과 경 배	191장 (통일찬송가 427장)			
기 도	박영근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성 경 봉 독	베드로전서 4장 7~11절		삼상 20:11~17	
설 교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임춘배 목사)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이심 (정용준 목사)	
헌 금	헌금송 : 청년부		다 함께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일어나 그 빛 비추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정용준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사회: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찬양팀			
기 도	김명옥 권사			
성 경 봉 독	열왕기하 10장 30~32절			
설 교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김만조 선교사)			
찬 양	549장 (통일찬송가 431)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시편 108편 1~13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 2)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3) 오늘 점심 봉사는 마리아회입니다.
- 4) 주차 안내
 - ①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② 흑석종합사회복지관 무료 주차 가능.

2. 오 후 예 배

오늘 오후 예배는 김만조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3. 월 삭 총동원금요기도회

9월 2일(월) 오전 5시 30분 월삭새벽예배(담당: 운영위원회)
9월 6일(금) 오후 8시 30분 총동원금요기도회(담당: 제직회)

4. 풋 페 스 티 살 벌

- * 일시: 9월 8일(주일) 오후 6시(오후 5시 30분 교회 출발)
- * 장소: 노들 풋살 경기장 & 흑석동 고기싸롱
- * 대상: 선한교회 모든 성도 및 지인들

5. 사 무 실 휴 가

손석규 관리 장로님 휴가(9월 2일~6일)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마지막 때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	--

찬송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통456)

본문 : 마가복음 3장 13~19절

말씀: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 날이 밝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제자를 삼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으셨으나 단 한 가지 보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는 13절 말씀에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14~15절)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날마다 새벽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다 봤을 것입니다. 주님과 모든 세세한 일상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파송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직장, 그 모든 곳이 보냄 받은 선교지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인생이 바로 보냄 받은 사도요 제자입니다. 셋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권능의 근원이신 주님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에게도 스며드는 것같이 똑같이 주어져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그 이름을 친히 부르는 제자가 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제 목

나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벧전 4:7~11)

서 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깨어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법

- (1)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2절)
- (2)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야 함(7절)
- (3)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함(8절)
- (4) 원망없이 대접하고(9절)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며 살아야 함(10절)
- (5) 봉사하는 방법(11절): ①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함
②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함

2. 교훈

- (1)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 (2)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 (3)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원망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고 있는가?

결 론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박영근 장로	편도선 장로
2부 예배 헌금	서창덕 집사	김재준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명옥 권사	김혜선 권사
주 방 봉 사	마리아	드보라

매일 Q.T.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기도 응답	날짜 : 9월 2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본문	느헤미야 2:1~10		
말씀요약	느헤미야 얼굴의 수심을 알아본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가 성을 건축하게 해 달라며, 이에 필요한 왕의 조서와 공사에 필요한 재물을 요청합니다. 아닥사스다왕이 이를 허락하고,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에 대적 산발랏과 도비야는 근심합니다.		
묵상질문 1	왕에게 간청하는 느헤미야 2:1~5 느헤미야의 금식과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최근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간청을 허락한 아닥사스다왕 2:6~10 왕에게 통행증과 재물 등을 요청한 것에서 느헤미야의 어떤 면모를 볼 수 있나요? 내가 기도하면서 세밀하게 준비해 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2장 4절 아닥사스다왕이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이전부터 기도해 왔고, 아닥사스다왕의 반응을 기도 응답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려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의 대전제는 기도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 기도가 언제, 어떻게 응답 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도움과 용기가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함께하시며 어떤 사람이라도 움직여 저를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 생활”	
찬양과 기도	내가 예수 믿고서(새 421),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말기 암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암 말기였을 뿐 아니라 혈압과 혈당 수치가 좋지 않아 침상 위에서 주사를 맞으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투병하는 내내 그의 마음에는 낙심만 가득했습니다. 심방하러 온 목사님에게 “이제 저는 다 되어 갑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있는 병실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암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낙심과 더 깊은 절망에 빠진 그를 보며 먼저 입원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말로 조언도 하고 병원 생활에 관해 친절히 안내해 주기도 했습니다. “진통제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1~2인실 혼자 쓰면 외로우니 다인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해 주었고, 젊은 환자도 그를 잘 따랐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 안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절망스럽지만 그곳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누군가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새롭게 보면서 마음이 회복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말씀나누기	데살로니가전서 5:12~22
묵상포인트	데살로니가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신앙적 권면을 담은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 은혜에 감격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세상 권세를 이기려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관찰과묵상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권면을 했나요? (12~13절)
적용하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함께 기도하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두려워할 유일한 대상, 지극히 크신 하나님	날짜 : 9월 6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본문	느헤미야 4:1~14		
말씀요약	산발랏이 성벽 재건 소식에 분노하며 유다 사람을 비웃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덮어 두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및 아라비아/암몬/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려 모의합니다. 이에 백성이 기도하며 방비하고, 느헤미야는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들을 독려합니다.		
목상질문 1	대적의 방해와 느헤미야의 기도 4:1~6 사기를 꺾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조롱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내가 사람에게 대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이겨 낼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두려워하는 백성과 신앙적 독려 4:7~14 대적의 위협으로 두려워하는 백성을 위해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나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4장 10절 하나님 일이 진행되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대적들의 비웃음에도 유다 사람들은 곳곳하게 성벽 재건을 진행했지만, 어려운 여건에 지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불완전 하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 틈타지 않게 말씀과 기도로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야 합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성도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원수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마음을 들여서 해 온 하나님 일에 대한 악의적인 회방으로 힘이 빠질 때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소서. 이미 저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Q.T.		신중하게 준비해 사명을 전하는 지도자	날짜 : 9월 3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569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본문	느헤미야 2:11~20		
말씀요약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과 밤에 나가서 무너진 성벽을 둘러봅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 일과 왕이 한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건축을 하자고 하자, 모두 그 일을 하려 합니다. 한편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상질문 1	예루살렘을 살피는 느헤미야 2:11~16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나요? 느헤미야처럼 내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성벽 재건을 독려하는 느헤미야 2:17~20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신 일을 간증하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간증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2장 17~18절 하나님의 일은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동의 방식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들은 거짓과 음모를 동원해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과격할 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한 일을 요청할 때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설득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선동은 빠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설득은 느리지만 사람의 열정을 일으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할 때 제가 감당할 일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것에 대해 나누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사람들의 비방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굳건하게 이루어 갈 거룩한 열심과 신앙의 독심을 주소서.		

매일 Q.T.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회복의 비전	날짜 : 9월 4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30 어둔 밤 쉬 되리니		
본문	느헤미야 3:1~14		
말씀요약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에서부터 성벽을 건축해 성별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합니다. 신분과 계층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이 동참해 성벽을 중수하며 문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니 다. 그러나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목상질문 1	술선수범하는 제사장들 3:1 성벽 재건에 앞장선 이들은 누구였나요? 내가 술선수범하면서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성벽 개전에 참여한 유다 사람들 3:2~14 드고아 귀족들이 성벽 재건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사사로운 유익이나 권리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3장 1절 지도자의 필수 덕목은 매사에 술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엘리아십은 명령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제사장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도자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뒤에서 지시하는 자가 됩니다. 반면 지도자란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하는 자가 됩니다.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막 10:45).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제가 겪은 믿음의 시련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제 눈물과 인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갇아 주실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수고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대면하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매일 Q.T.		지혜로운 분담, 자발적인 헌신	날짜 : 9월 5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320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본문	느헤미야 3:15~32		
말씀요약	제사장, 레위 사람, 여자, 고위 관리, 금장색, 상인 등 신분과 직업에 상관 없이 많은 백성이 공사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맡아 중수합니다. 성벽 중수 공사는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함입갓문을 거쳐 공사가 처음 시작되었던 양문에서 끝납니다.		
목상질문 1	성벽 재건에 참여한 레위인들 3:15~22 제사장과 레위인의 참여와 헌신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내가 지혜롭게 분담해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 낼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능력을 따라 참여한 사람들 3:23~32 ‘자기 집 맞은편 부분’ 성벽을 건설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느헤미야 3장 31절 성도의 헌신은 자기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세 공업자는 직업상 ‘손’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세공업자인 말기야는 자칫 ‘손’이 다칠 수도 있는 성벽 재건 작업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마저도 선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적당히 하려는 오늘날 성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할 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헌신할 기회 앞에 필요한 자세는 자기 부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각자 처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소임을 다할 때 성벽이 완성되어 감을 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지원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주변의 다양한 환경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귀한 재료로 사용되게 하소서.		